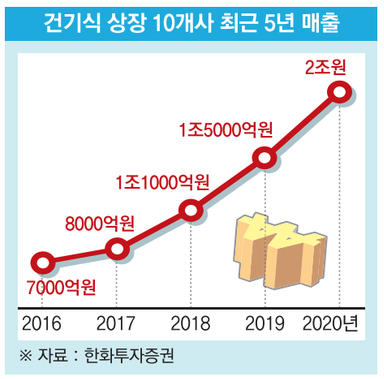
'25조' 건기식 시장 주도권 잡아라

〈2030년 예측〉 〈건강기능식품〉

"미래의 먹거리 사업 놓치지 말자."
급성장하는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시장에 주목하고 새로 참여하거나 사업역량을 강화하는 기업이 크게 늘고 있다. 특히 기존에 건기식 사업을 하던 제약이나 바이오 기업 외에 식품과 같은 다른 분야의 기업들이 적극 신사업 투자를 하고 있다. 새 경쟁자의 등장에 기존 업체들은 제품 라인업을 리뉴얼하거나 신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등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건강기능식품(건기식) 시장이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면서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건기식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건기식 시장에 재도전하는 농심의 '라이필 더마 콜라겐(위 사진)'과 롯데제과의 건기식 브랜드 롯데헬스원이 내놓은 '녹여먹는 자일리톨'. 사진제공 | 농심·롯데헬스원

코로나 영향으로 폭발적 성장세
롯데 등 식품기업들 공격적 투자
기존업체들도 신제품 개발 박차
마케팅 과열로 과장광고도 발생

●2030년 25조 시장규모 전망

건기식 시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겨난 '내 건강은 내가 챙긴다'는 셀프 메디케이션(Self Medication) 붐의 영향으로 지난해부터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한화투자증권의 자료에 따르면 노바렉스 에이치엘사이언스, 뉴트리, 쎌바이오텍, 팜스빌, 코스맥스엔비티, 종근당건강, 비피도, 콜마비앤에이치, 서흥 건기식 등 건기식 분야의 주요 10개 상장사의 지난해 매출은 총 2조 원으로 전년 대비 35%나 증가했다.

여기에 비상장사와 중소업체까지 포함하면 건기식의 전체시장 규모는 지난해 4조9000억으로 추산되고, 올해는 가뿐히 5조원 대에 올라설 전망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2030년이면 시장이 다섯 배로 커져 25조 원 대의 시장을 형성할 것이라는 장밋빛 예측까지 내놓고 있다.

이렇게 전망이 밝다 보니 여러 기업들이 잇따라 진출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그중 눈길을 끄는 것은 식품 기업들의 공격적인 투자다. 롯데제과는 건기식 브랜드 롯데헬스원을 통해 신제품 '써큐나제', '녹여먹는 자일리톨' 등을 출시하며 제품 라인업을 강화했다. 방송 출연을 통해 친숙한 한의사 이경제 원장과 건기식의 공동 연구 기획, 마케팅을 추진하는 업무협약도 맺었다.

같은 그룹 계열사인 롯데칠성음료도 스타트업 바른과 공동개발한 구강 항균 건강기능식품 '마시는 클리닝타임 사과향'을 내놓았다.

2015년 건기식 시장에 진출했다가 큰 재미를 보지 못했던 농심은 콜라겐 제품 '라이필 더마 콜라겐'을 내놓으며 재도전에 나섰다. 라이필은 사내벤처를 통해 선보인 브랜드로 농심은 라이필을 통해 건기식 사업 분야를 확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소분판매 허용 등으로 건기식에 '구독경제' 서비스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높은 성장 잠재력에 식품업체들이 주목하고 있다"며 "다른 업종보다 관련생산설비를 마련하기가 상대적으로 쉽고, 판매 유통망도 자사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점에 매력을 느끼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시장경쟁 치열해지자 과장광고 잡음도

제약·바이오의 안마당 같던 분야에 새로운 경쟁자들이 나서면서 기존 업체들도 긴장하고 있다.

그동안 질병 전문 치료제에 치중하던 신풍제약은 최근 사업다각화 차원에서 건강기능식품사업부를 신설하고, 눈 건강과 혈관건강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2종을 내놓았다. 대원제약은 건기식 전문 브랜드 '장대원'을 피로회복, 눈 건강 등 복합 기능성 제품 4종을 추가해 라인업을 강화하며 전면 리뉴얼했다. 한독도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네이처셋'을 리뉴얼 론칭하면서 종합비타민 팩과 루테인아스타잔틴 캡슐 등 신제품 2종과 오메가루테인 캡슐의 패키지 변경 제품을 출시했다.

한편, 진출 기업의 덩치가 커지면서 위기감을 느낀 건기식 중소업체의 마케팅도 덩달아 과열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불법 과장광고와 같은 잡음도 발생하고 있다.

식약처는 최근 코로나19 예방과 치료효과를 내세운 허위, 과대광고 1031건을 적발했는데, 이중 건기식이 320건을 차지했다. 홍삼, 식초 등의 건강기능식품 등이 코로나19 등의 예방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기하거나 흑마늘, 녹차, 도라지 등 원재료가 코로나 예방 등에 효능이 있다는 체험기를 내세웠다가 적발됐다.

그런가하면 공정거래위는 환자를 기만하는 담합행위의 일종인 쪽지처방을 일부 병의원과 공모해 제품을 판매한 건기식 유통업체 에프앤디넷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7200만 원을 부과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목·허리·척추 통증…체형 불균형 바로잡는 도수치료 필요

건강올레길 | 우리동네 주치의의 건강학

최근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체형 불균형의 통증으로 고생하는 환자가 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시간의 증가로 인한 일자목·거북목 환자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는 생각으로 가볍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방치할 경우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고, 악화되면 목 디스크로 이어질 수도 있다.

평상시 가벼운 통증들은 생활습관만 개선해도 완화될 수 있지만, 이런 증상이 반복될 경우 병원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한다. 약물이나 주사로 일시적인 통증을 완화해 줄 수는 있지만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인 체형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교정해야 재발 위험도 적고 통증까지 완화될 수 있다.

체형 불균형 교정은 도수치료와 같은 비수술적인 방법으로도 호전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도수치료는 마취나 약물 등을 사용하지 않는 비수술적 치료로 전문치료사가 맨손을 이용해 척추나 사지의 연부조직, 관절의 위치를 바로잡고 통증 및 체형을 개선하는 방법이다. 목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척추, 관절 질환에 적용할 수 있고, 성장기 아이들의 키 성장을 조기에 바로잡아 성장에 도움을 되기도 한다. 또한 고령의 환자, 고혈압, 당뇨 등의 질환 환자에게도 진행이 가능하며 후유증이 거의 없는 치료법으로 알려져 있다.

도수치료는 전문교육을 받은 물리치료사나 전문의에게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며, 치료와 함께 생활습관도 같이 개선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사람마다 통증의 정도와 부위가 다르기 때문에 충분한 상담을 통해 개개인에 맞는 정확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평그린마취통증의학과 **박정우** 원장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4월 22일(목) 음력: 3월 11일 문의 : (02) 812-1201, 도원학당

쥐 행운색:흰색 길방:서	**소** 행운색:적색 길방:남	**호랑이** 행운색:검정 길방:북	**토끼** 행운색:검정 길방:북	**용** 행운색:흰색 길방:서	**뱀** 행운색:청색 길방:동
일이 잘 풀리지 않았던 사람은 천천히 회복기에 접어들게 된다. 여성은 애정문제로 심적 고통을 받게 된다. 여행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생활에 변화를 꾀하게 되며 매사에 왕성한 활동을 하나 신중한 자제력이 필요하다.	순풍에 돛을 달고 배가 물위를 달리는 기운으로 밖을 향하여 큰 기운을 발산하고 대사업을 이룩해 가는 시기이다. 이제까지의 불운을 만회하고 걱정이나 번민에서 해방되는 때이다. 하지만 너무 태만하다보면 모처럼의 행운도 놓치게 된다.	금전 지출은 많아지고 금전융통은 잘 이루어지지 않겠다. 남녀 모두 연예나 결혼의 좋은 기회를 맞게 되나 다툼이 일어나고 금전상 불안감이 생기게 된다. 유흥 또는 먹고 마시는데 지나치게 낭비하지 않고 저축에 힘쓰면 좋은 성과가 있겠다.	매사 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회로 굳은 얼음이 풀리고 만물이 일제히 싹틀 때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괴롭고 어려웠던 문제도 해결되고 새로운 출발의 시기가 온 것이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재빨리 호기를 붙잡아야 한다.	지금까지 감추려 했던 일들이 세상에 노출되어 그로 인한 소송문제로 신경을 쓰게 되며 애정문제에도 다툼이 생겨 걱정거리가 표면화되기 쉬워진다. 지금까지 성실히 노력해 왔던 사람은 승진과 지위향상의 영예를 얻게 된다.	지나친 야망과 욕심에 치우치지 말고 침착하고 냉정하게 긴 안목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좋다. 물론 뻗어가는 기운이지만 그만큼 책임은 무겁고 긴장이 끊이지 않는다. 사물은 성하면 쇠하는 법. 지나친 언동은 삼가고 항상 신중 하라.
말 행운색:청색 길방:동	**양** 행운색:적색 길방:남	**원숭이** 행운색:노랑 길방:중앙	**닭** 행운색:검정 길방:북	**개** 행운색:적색 길방:남	**돼지** 행운색:청색 길방:동
봉사를 해야 하는 운기의 날이다. 눈앞의 작은 이익을 버리고 먼 미래를 차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질적으로는 손해지만 그 행위로써 상대를 기쁘게 하고 남에게 덕을 입히는 것으로 나중에는 이익이 되어 돌아온다. 극적인 변화가 이루어진다.	심사숙고해서 경거망동을 삼가야 할 시기이다. 경솔히 나아가면 산에 산이 중첩하는 난관에 부딪친다. 정지해야 할 때는 정지해야 한다. 태연하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차분히 노력해서 현재의 지위를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음과 양의 기운이 서로 통하고 감응하는 운기이다. 이성을 만나면 길한 날이다. 운세는 좋은 때이며 직감에 호소하여 민첩하게 행동하면 효과를 본다. 첫인상에서 좋게 느껴진 것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애정 운이 최고인 날이다.	고귀하면 고귀할수록 비천함에 봉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한다. 뛰어난 재능, 아름다운 용모는 겸허함으로써 더욱 빛나는 것이다. 매사에 쓸데없는 욕심을 부리면 안 되며, 지금은 재능을 감춰두고 조용히 기회를 기다려야한다.	물이 차지 않으면 배가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시기가 올 때까지는 체념하고 기다려야 할 때다. 협력해 주는 사람을 기대할 수 없고, 홀로 자기 길을 가야 할 각오가 필요하다. 기발한 묘책으로 실리 달성을 획책하려 하는 기운이 강한 날이다.	하늘과 땅의 조화가 되지 않는 날이다. 벅찬 일로 고역을 치른다. 그렇다고 일을 포기할 수는 없다. 격류를 견디어 내려면 굳센 용맹심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 이때에는 중요한 문제에만 치중하여 일의 부담을 더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동국생명과학, 글로벌 진출 위해 기업공개 추진
NH투자증권·KB증권 주관사, 2년 내 상장 계획

Dongkook 동국생명과학

동국제약 자회사인 동국생명과학이 상장을 추진한다. 동국생명과학은 21일 NH투자증권을 대표 주관사로, KB증권을 공동 주관사로 선정해 IPO(기업공개)에 나선다고 밝혔다.

동국생명과학은 2년 내에 기업공개를 통한 신규 자금으로 글로벌 시장과 인공지능(AI), 바이오로직스 및 체외진단 등 의료기기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향후 바이오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M&A 등을 통한 성장전략도 추진하고 있다. 성공적인 기업공개를 위해 KPMG 출신의 이재혁 전무를 영입했다.

2017년 5월 설립한 동국생명과학은 2020년 국내 조영제 시장 점유율 1위의 기업이다. 최근 신규 원료의약품인 가토부트롤을 수출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다. 동국생명과학 관계자는 "안성공장에서 내년 조영제 원료 및 완제 의약품 생산이 본격화되면 원가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신규상장을 위한 기업가치 향상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김재범 기자

서울아산병원,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 본격 운영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는 강박장애와 공황장애 환자들의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강박장애와 공황장애는 약물치료와 인지행동치료를 병행했을 때 효과가 좋아진다고 보고되고 있다. 강박장애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은 4주간(총 8회), 공황장애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은 2~3주간(총 5회) 진행한다. 회당 1시간씩 진행하며 강의와 질의응답, 과제 수행 등의 개별실습으로 구성했다.

유사나, 이종범-이정후 부자 3년 연속 모델 발탁

유사나헬스사이언스(이하 유사나)는 프로야구 스타 부자인 이종범-이정후 부자(사진)를 3년 연속 공식모델로 선정하고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벤트를 진행한다. 유사나는 2019년부터 이종범-이정후 부자를 광고모델로 기용해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이라는 테마의 캠페인을 진행해 왔다. 폭 넓은 연령대의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어 올해도 이들 부자를 모델로 발탁했다. 유사나는 모델 재기용 첫 행사로 '이종범-이정후 부자 최애템 퀴즈 이벤트'를 유사나 인스타그램에서 진행한다. 25일까지 진행하는 '이종범-이정후 부자의 밸런스 게임' 영상에 숨겨진 퀴즈 정답을 맞히는 이벤트다.

오늘의 날씨 22일(목)

서울 30/30 15 27	인천 30/30 14 24	춘천 20/20 13 26	
강릉 20/20 15 22	대전 30/30 14 27	전주 30/30 14 26	
광주 30/30 14 26	대구 30/30 14 26	부산 20/20 15 22	
창원 20/20 13 23	제주 30/30 15 24	지역 / 강수 확률 (오전/오후)	날씨 / 최저 최고기온°C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563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제호 사업총괄 김상수 광고국장 이승욱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산업경제부장 양형모 사진부장 고종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일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보·투고 02-361-1616 sol@donga.com